

## 무릎 인대 손상환자의 퇴원 전 · 후 관심사\*

현혜영\*\* · 최경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신체의 가동성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무릎 인대의 손상이 최근 다양한 스포츠의 일반화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가 빈번해짐 따라 슬관절 손상환자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임현, 1988; 정영복, 1994).

무릎 인대 손상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국소 동통, 반사성 근경련으로 슬관절의 운동제한이 나타나 정상적인 보행이나 체중 부하가 어렵게 된다. 대개의 진단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외력에 대한 병력 청취, 이학적 소견, 방사선적 검사 및 관절경 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하게 된다. 치료로는 파열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이 중요하며, 손상이 경미하면 3~4주간의 석고 고정과 목발 사용으로 부분적 체중부하를 허용하며, 파열이 완전하여 슬관절의 불안정이 확실하거나 주변의 다른 부위까지 손상이 동반되면 조기수술로서 원상태로 수복해야 하며, 손상조직의 봉합은 손상 직후가 가장 쉽고 예후도 가장 좋다. 수술후 6주간의 목발 보행으로 부분적 체중 부하만을 하며, 이때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 모든

경우에 대퇴 사두근의 근력을 유지하고 위축을 예방하기 위한 대퇴 사두근의 수축훈련(Quadriceps Setting Exercise: QSE)과 근력 증강 운동(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SLE)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한윤복, 1988; 김영숙, 1988).

이와같이 무릎 인대 손상환자에게 있어서 대퇴 사두근 수축훈련이나 근력 증강 운동의 중요성은 간호사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환자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 이러한 운동이 물리치료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급성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치료와 간호를 하게 되므로 체중 부하 제한과 활동저하로 인한 문제는 거의 관심밖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골격근 위축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크다. 입원중은 물론이고 퇴원후까지도 환자들이 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자발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하던 사람이 질병으로 입원 가료후 퇴원을 앞두고 되며 재발을 막고 보다 완전한 건강회복을 위하여 퇴원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정보 요구가 많아지게 된다(Pender, 1974;

\* 1995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대학부속 필동병원 간호감독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상미, 1985). 퇴원후에도 계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사전에 퇴원계획을 세워 추후 간호가 실시되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퇴원계획 수립은 전인간호 업무수행과 질적간호를 위하여 필수적이다(강규숙, 1976; Beatty, 1980; Waters, 1980).

퇴원계획은 입원당시부터 환자에 관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하여 환자의 환경을 근거로한 잠재된 문제와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분석 규명하여 충족시켜 주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간호계획을 말하며, 이러한 간호계획을 직접 수행하여 환자가 퇴원하여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돕는데 간호의 목적이 있다(Abdella, 1970; Hushower, 1978).

이러한 간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간호역할중 가장 중요한 환자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알기 원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은경, 1972).

지금까지의 선행된 퇴원간호계획에 관한 연구는 입원중이나 퇴원시 환자들이 요구하는 건강정보 요구와 퇴원후 건강정보 제공이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김용순, 1978; 장정희 1980; 이, 1985; 최경원, 1978; 김은경, 1992)이 있다. 또한 근력강화 운동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운동장애 환자와 활동저하 후 나타나는 사두근 근소실과 하지근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윤태자, 1989; 최명애, 1991~1993; 채영란, 1993)들이 있다. 그러나 무릎 인대 손상환자의 간호에 관한 선행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무릎 인대 파열환자를 대상으로 퇴원당시와 퇴원후 4주간의 실제 생활 중에 겪었던 경험에서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퇴원간호계획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운동교육안을 마련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무릎 인대 손상환자들의 퇴원전후 관심사를 파악하여 입원기간중에 세워지는 퇴원간호계획 및 운동교육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무릎 인대 손상환자의 퇴원전 예상되는 관심사를 파악한다.
- 2) 무릎 인대 손상환자의 퇴원후 생활에서 경험되어졌던 실제 어려움과 관심사를 파악한다.
- 3) 무릎 인대 손상환자의 퇴원간호계획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운동교육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II. 문헌고찰

### 1. 무릎인대 손상과 운동

신체의 무릎관절 부위는 체중을 부하하는 부분으로써 근육, 인대(십자인대와 측부인대) 및 관절표면과 반월연골이 건강할 때 그 주요기능인 안정성과 원활한 가동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의 가동성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무릎 인대의 손상은 흔히 젊은 남자에게 스키나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시 파진전이나 파회전 등에 의해, 또는 자동차 사고등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게 된다(김영숙외 8인, 1889). 슬관절의 인대손상은 다른 관절에서보다 중대한 기능장애를 초래하며, 후방십자인대는 슬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임현, 1988)고 하였다. 정확한 치료방법을 세우기 위하여 파열정도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완전파열시 조기수술로 파열부의 수복으로 슬관절내의 이차성병변을 예방할 수 있다(석세일의 12인, 1988).

어떤 무릎관절 손상이든지 무릎관절의 안정성에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위축이 일찍 생기므로 보존요법에 있어서나 수술요법에 있어서 대퇴골대근의 근력강화 운동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한운복, 1889).

입원은 체중부하와 근육수축 활동의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로 최(1991 <2>)는 입원기간동안 주로 침상안정을 하였던 내

과환자들의 하퇴돌레가 입원 3일째부터 3.25% 감소하였고 대퇴돌레는 입원 7일째부터 각각 3.25%, 6.9%가 감소하였으며, 하지근력은 입원후 14일째 입원 당일에 비해 29.09%가 저하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1992)는 활동저하부 회복기의 운동훈련이 쥐의 위축근의 길이와 둘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활동저하후 회복기에 운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쥐의 위축근의 둘레성장이 증가함을 보고 침상안정후 회복기 운동이 근육의 둘레성장을 촉진시켜 위축근의 질량회복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1993)는 석고붕대 제거 후 상·하지의 둘레, 피부두껍두께 및 하지의 근력이 석고붕대 적용측과 정상측간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무릎 인대파열, 경골골절자와 종골골절등으로 입원하여 부목이나 석고(splint, long leg cast, short leg cast)를 40일간 하고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석고붕대 적용측과 정상측의 상·하지 둘레와 피부두께 하지의 근력을 측정하여 석고붕대 제거후 정상측에 비하여 석고붕대 적용측 하지에 근위축이 현저하게 유발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채영란(1993)은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수술 후 활동저하가 하지근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환측하지와 정상하지에 근위축이 유발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윤태자(1989)는 운동장애 환자의 사두근 근소실에 대한 임상적 고찰에서 하지손상으로 인해 정상체중부하를 할 수 없는 환자에서 대퇴돌레가 입원 10일과 15일에 각각 3.55%, 8.4% 감소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 연구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 하지의 등장성 및 등척성 운동을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하지근의 위축을 예방하고 기능이 회복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보다 더 빨라지도록 해야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골격근 위축의 회복을 증진시켜주는 간호계획과 중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 2. 퇴원간호계획

Johnson(1981)은 간호의 목적인 전인간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간호사는 환자가 입원하면서부터 퇴원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간 후 추후간호의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간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Jennings(1977)는 조기퇴원 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퇴원전에 입원과 동시에 세워진 퇴원계획에 의해 필요한 추후간호 실시에 대한 지식 및 자가 간호 방법에 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실시 요령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과 함께 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이다.

김용순(1976)은 입원기간중 환자가 받은 건강정보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관한 일연구에서 퇴원교육이 당일에서야 교육이 되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퇴원하기전 퇴원후 자가 간호 등에 관한 자세한 건강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였으며, 장성희(1980)는 환자가 요구하는 건강정보에 관한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요구가 성별, 입원경험, 교육수준, 나이 등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환자들에게 정보제공시 간호사는 잘 준비되고 조직화된 환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여자 환자나, 노인 환자, 입원경험이 없는 환자, 학력이 낮은 경우의 환자에게 더욱 반복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미(1985)는 퇴원환자의 간호계획을 위한 요구도 조사연구에서 퇴원시 상태나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증상이나 약에 대한 설명, 퇴원후 자가치료에 관한 방법이나 이유, 퇴원후 병원방문 일자 퇴원후 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가족의 협조와 집의 환경에 관한 요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와 이에 대하여 현재에도 임상에서 퇴원계획에 의한 퇴원후 추후간호를 위하여 교육 및 간호정보가 미약하게 실시되고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퇴원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경원(1987)은 입원시 환자와 담당간호사가 인식한 간호요구도의 일치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에서 환자의 교육적 간호요구도가 높은 반면에 간호사는 정서적 간호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이 보고되었다.

퇴원후 간호교육요구 및 교육에 대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는 김금순, 유경희(1991)는 퇴원시 간호정보 제공이 개심술 환자의 지식, 신체정상, 상태불안 및 일상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정보는 지식이나 정서적 장애, 간호지시 이행외에도 환자에게 복합적 측면에서 효과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법이 체계적이기 보다는 개인 간호사의 직관에 의한 즉각적인 정보제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시 교육용 소책자를 사용하여 제공한 간호정보는 개심술환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지식정도는 퇴원후 2주에 최대로 증가하였으며, 교육용 소책자를 사용하여 제공한 정보는 개심술환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대조군에 비하여 높게 보고되었다. 김은경(1992)은 개심술 환자중 퇴원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적 요구에 대한 연구에서도 높은 교육요구가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 강규숙(1971)과 전경애(1977)의 연구에서도 환자들의 교육적 간 호요구가 매우 높았으며, 또한 자세히 가르쳐 줄

것을 상당히 원하는 결과들로 보아 환자의 교육적 요구에 대하여 입원시부터 퇴원계획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간호정보를 계획하고, 퇴원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 반복되는 문제나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1994년 12월부터 1995년 4월 사이에 서울특별시내 일개 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에 무료 인대(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수술적 방법으로 인대 재건술을 받고 2주 이하의 입원기간을 갖는 환자 12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여	남	여	남	남	남
연령	20	44	29	25	52	20	20	44	20	32	21	40
학력	대재	대학원 재	고졸	고졸	국졸	대재	대재	대졸	대재	고졸	대재	고졸
직업	학생	건축업	회사원	은행원	노동	학생	학생	목사	학생	자영업	학생	택시 기사
주택 형태	아파트	일반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아파트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손상 원인	축구	스키	축구	축구	낙상	농구	스키	축구	스키	축구	농구	운전

#### 2. 자료수집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2차례에 걸쳐 직접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양해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한 후 면담내용은 가능한 즉시 다시 들으면서 연구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 <1차 면담 질문내용>

- 1) 퇴원당일인 지금 가장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 2) 퇴원하면서 예상되는 걱정거리나 염려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2차면담 내용〉

- 1)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하는 중에 실제로 경험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2) 퇴원하여 집에서 생활하면서 운동은 어떻게 하셨습니다?
- 3) 퇴원하여 생활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퇴원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Giorgi분석 방법에 의해

- 1) 대상자와의 면담을 녹음한 테이프를 반복해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 자료를 기술하였다.
- 2) 기술된 내용에서 지지와 관련된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 3)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를 다시 공통되는 특성으로 묶어 범주화시켰다.
- 4) 범주화된 자료는 연구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해 명명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무릎 인대 손상환자들의 퇴원전 관심사

본 연구 대상자들의 퇴원전 관심사는 대체로 4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정상적인 신체회복 가능성에 대한 염려], 둘째는, [정상적인 사회활동 가능성에 대한 염려], 셋째는 [자가 간호 결핍에 대한 염려] 넷째는 [주위 사람에 대한 염려]이었다.

[정상적인 신체회복 가능성에 대한 염려]의 범주는 〈회복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회복에 대한 막연한 걱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회복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운동을 예전처럼 잘 할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예요.” “제가 운동을 몹시 좋아해서 테니스반

선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회복해서 선수로 뛸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앞으로 운동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제 취미가 볼링이나 운동인데 예전처럼 할 수 있을지가 정말 걱정되네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활동이 가능한건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언제쯤이나 정상보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또 운동은 언제쯤이나 가능한지…….” “당장은 회사에 휴직신청을 해놨는데 언제부터나 다시 출근할 정도로 회복되는 건지 걱정되고 궁금해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회복에 대한 막연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한 1년 이상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걱정이예요.” “궁금하고 걱정되는 일이야 많지만 회복이라는게 기다려봐야 하니까 기다려야죠, 그냥 막연히.” “활동이 불편하니까 정말 앞으로가 겁갑하고 막막하네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예요.” “차도에 대한 경과는 계속 앞으로 외래를 다니면서 봐야한다니까 지금이야 그냥 기다리기가 하지만 정말 걱정이예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 가능성에 대한 염려]의 범주에는 〈활동제한에 대한 걱정〉과 〈생활비에 대한 걱정〉의 2가지 속성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활동제한에 대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퇴원후 일단은 쉬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간 입원해있는 동안에 일이 많이 밀려있다고 자꾸 연락이 오니까 빨리 퇴원해서 집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출근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예요.” “퇴원하면 학교에 다녀도 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정말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은 되요.” “목회일을 비워두고 입원해 있어서 걱정도 되고, 바로 나가면 주일예배도 봐야하는데 잘 될지 걱정이군요.” “집에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되는군요. 지금은 방학이라서 괜찮겠지만 개학해서 학교가면 걱정이예요.” “곧 개강하면 저희 강의실 4

층에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다닐 일이 까매요.” “병원에서는 퇴원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니가 퇴원은 하는데 잘 지낼 수 있을지 문제예요.” “여기선 움직이려면 휠체어가 있어서 사용했는데 당장 퇴원하면서 4주일동안은 목발사용을 해야 한다니까, 그 상태로 다녀야 될테니 그게 문제지.” “나가면 여기서 저길가도 목발을 써야 한다니 큰 일이지.” “마침 집에 계단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니려면 쉽지 않을거예요.” “병원에서는 움직이려면 거의 휠체어타고 다녔는데 집에 가면 걱정이예요, 목발을 꼭 사용하고 걸어야 된다니까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생활비에 대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일단 퇴원하면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모댁에서 신세 좀 지기로 했어요, 4주 있다가 병원에도 와봐야 하고 월급이 안나오니까 생활하기도 힘들테고 해서요.” “이렇게 일다니다가 다쳐서 큰 일이에요, 몸으로 벌어들이다가 다쳤으니, 지금하는 일이 건축업이라 발로 뛰어야 하는데 이렇게 다쳐서 정말 걱정입니다.” “가장인 제가 다쳤으니……, 지금하는 일이 자영업이라 당장은 쉬지만 오래야 될 수 없죠, 요번에 우리애기도 태어났는데요.” “제가 움직이면서 해야하는 일인데 꼼짝없이 쉬어야 하니가 큰일이죠.”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자가 간호 부족에 대한 염려]의 범주에서 <자가 간호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한 걱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자가 간호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집에가면 아무래도 운동기구도 없으니까 걱정이지요.” “제가 스스로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현재는 90도까지 다리가 굽혀지며 집에서가서 1달 동안 연습해서 끝까지 굽혀져야 한다는데 잘 할 수 있을까도 걱정되어요.” “우선 병원에서 처럼 운동이 열심히 될지도 모르겠어요.” “운동이 중요하다니깐 하긴 열심히 하겠지만 잘될지…… 막

상 집에가면 운동기구도 없고 할텐데 걱정되네요.” “병원선 계속 간호사분들이나 의사양반들이 들어와서 운동하라고 하고 확인하고 하니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집에가면 그럴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고 잘될지 모르겠네요.” “운동하는 방법이나 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기계도 없고 하니 집에서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궁금해요.” “조금씩 무릎을 굽혀주는 운동을 하라고는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해서 잘안될거 같아요.” “어느선까지 단계적으로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운동을 너무해도 수술한 부위가 무리가 가서 인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무리가 가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병원에서 지내다가 많이 아프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의사나 간호사들께 물었지만 이제 집에가면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하니가 걱정되죠.” “혹시라도 제맘대로 했다가 잘못할까봐 제일 걱정되요, 운동하다 아프면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몰라 걱정이 될꺼예요. 퇴원하면 어디다 쉽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서 해야 하니가 그것도 걱정이지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주위 사람에 대한 염려]의 범주에는 <시선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에 대한 걱정〉의 2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시선에 대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목발을 사용하게 되면 불편도 하겠지만 남들이 보는 것도 신경쓰이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는 다같이 아픈사람들이라 괜찮은데 앞으로 퇴원하면 그렇지가 못하니가 걱정이네요.” “퇴원하면 이제 병원이 아니니까 상황이 틀려지니까 많이 신경쓰일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부담감에 대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어머님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도 몸이 불편하니가 자꾸 짜증이 나니까 엄마에게 투정을 부려요, 그러다가 혼나죠, 그럴 때 조금 받아주시면 좋을텐데……, 집에가면 꼼짝 못하니가 더 짜증

을 낼것같아요.” “지금은 집이 부산이라서 서울에 있는 친구나 친한친구만 병원으로와서 만났는데, 집에가면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고 유혹이 많을텐데, 걱정입니다.” “이제 집에가도 식구들이 고생이죠, 저 때문에.”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 2. 무릎 인대 손상환자들의 퇴원후 관심사

본 연구대상자들의 퇴원후 관심사는 대체로 5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첫째는, [불편함]

둘째는, [어려움]

셋째는, [필요함]

넷째는, [걱정됨]

다섯째는, [고마움]이었다.

[불편함]의 범주에는 <자가 간호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자가 간호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의 내용으로는,

“목발을 짚고서 생활해야 하는 일이 많이 불편했어요.” “목발사용도 서툴러서 더 힘들고 불편했어요.” “밖에 나가면 차를 타야하는데 지하철은 계단이 많고 버스도 한자리에 잘 서지지 않으니깐 굉장히 불편하죠.” “계단을 내려갈때는 정말 심각해요.” “진작 목발을 많이 써봤으면 한결 수월했을 것 같아요.” “계단다니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불편함]의 범주에는 <치료지시 이행에 대한 어려움>과 <신체적 피곤감으로 인한 어려움>과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치료지시 이행에 대한 어려움>의 내용으로는, “운동이 병원서처럼 그렇게 안되었어요.” “침대에 걸쳐 앉아서 그냥 제가 알아서 적당히 했어요.” “그냥 저 혼자서 해야하니까 잘안되기도 했

고.” “목발을 짚고 다디면 그게 운동이지 해서 대퇴부에 힘주는 운동은 안했어요.” “병원에서 애기한 만큼은 못하죠.” “힘도들고 저 혼자서 하려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제가 만족하는 만큼만 했어요.” “운동은 집에서 효과적으로 못했어요.” “운동 시간을 다합해도 1시간도 안될거예요.” “쇼파에 앉아서 적당히 했어요.” “설교하기 위해 걸어 나갈때도 목발짚고 나가라고 했는데 아프지만 그냥 걸어서 나갔어요.” “그러며 안된다고 했는데……, 어쩔수 없더라구요.” “집에서도 움직일적엔 항상 목발을 쓰라 했는데, 그게 잘 안지켜져요”, “그냥 집안에선 갱깡발(한발)로 다니거나 목발을 하나만 가지고 짚거나 했어요.” “운동은 병원서처럼은 못했구요, 그냥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까지만 했어요.” “병원서는 500번은 하라고 했는데 다합해도 한 번할때 20번정도해서 150번은 했을거예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신체적 피곤감으로 인한 어려움>의 내용으로는,

“퇴원하고 며칠간은 굉장히 고생했어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그냥 잠만자고 나가도 힘들었어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퇴원하고 바로 은행에 출근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퇴원하면서 바로 개강이라 학교에 갔었는데, 목발사용이 서투르네다 책가방이 무거워 한달간이나 그냥 쉬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힘들기 보다는 무서웠어요, 누가 저를 밀게 될까봐 너무 긴장되드라구요.” “한달동안 집에만 있다보니 답답해서 힘들었어요.” “밖에 나가는 일은 퇴원하고 엄두도 못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접대가 많은데 몸이 불편하니깐 교제가 어려웠어요, 술은 물론이고 식사를 하려해도 대개들 우리 음식점들이 앉아서 하는 집들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사회생활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의 내용으로는,

“한달동안 집에서만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친구들은 몹시 일이 많아 바쁜 것 같은데 나만 집에서 뒤통지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구요.” “사회 생활서 많이 피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체육을 좋아 하는데 과에서 체육을 해도 저는 뛰고 싶은데 뒤에 앉아서 박수치고 응원이나 해야하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조금 예전에 비해 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전에 과대표 선출이 있어 거의 제가 맡을 뻔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양보하기도 했어요, 그땐 무척 속상했어요.” “학기초라서 신입생 환영회등 행사가 많았지만 공부시간 이외에는 참석하기가 힘들어 그냥 돌아가곤 했더니 1학년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친구들과고는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게 되니까 답답하죠.” “회사업무만 끝나면 그냥 집으로 곧장 갈죠, 그러니 일과후 술이나 모임등엔 전혀 참석하기 힘들었죠.” “목회일 이외에는 가족들하고 집가까운 곳에 나가 식사도 한 번 정도 밖에는 하지 않았고 여러 외부활동을 뒤로 미루고 있으니 아무래도 답답하죠.”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필요함]의 범주에는 <목발사용에 대한 퇴원전 교육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정보적 요구에 대한 필요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목발사용에 대한 퇴원전 교육의 필요성>의 내용으로는,

“퇴원 며칠전에 바로 목발을 주어서 연습할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일찍 목발을 주면서 간호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해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실제로 자세히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는 휠체어가 있어서 자주 이용했는데 집에가니까 당장 불편하더라구요, 후회했어요. 진작 목발로 걸어 다니면서 연습이 필요했는데……, 간호사들이 미리 집에가서 생활하면서 필요한것들을 여러번 실습할 기회를 주었으면 해요.” “병원에 있는 시간에 환자들이 쉽게 휠체어를 퇴원때까지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목발사용

을 더 권하면 좋겠어요.” “계단 다니는 것은 꼭 배워야겠드라구요.” “제 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해요.” “집에서 운동도 어디까지 또는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해요.” “퇴원전에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었으면 해요, 집에선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하는 방법을 요, 그냥 무조건 많이만 하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잘안되니까 쉽게 따라할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 주었으면 해요.” “병원서 일부러 수술하고 하루만 휠체어 탔고 다음날부터 목발을 사용했더니 집에가서 목발사용할 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병원서 퇴원하기 전부터 매일 5번씩 목발짚고 계단을 8층부터 9층까지 올라다녔어요.” “그래선지 집에서나 목회일을 보면서도 계단이나 목발사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라는 표현을 포함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보적 요구에 대한 필요성>의 내용으로는,

“운동을 하거나 생활하다가 특히 아프거나 궁금한 것이 있어도 어디다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답답했어요.” “운동을 하다가도 조금 아파오면 그냥 그래도 해야 하는지, 쉬어야 하는지를 누가 병원서처럼 물어볼데가 있었으면 해요.”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을 찾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참자니 신경쓰이고 할 때가 있어요.” “병원서는 궁금하면 자주 물어보곤하여 해결했는데 집에가서 지내다 다리에서 소리가 나거나, 평소보다 불편하거나 아플때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요, 그럴 때 누가 조금만 상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걱정됨]의 범주에는 <신체회복에 대한 걱정>과 <신체변화에 대한 걱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신체회복에 대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무릎이 안굽혀진다고 물리치료 받아요 한다고 하니까 회복이 잘 안될까봐



걱정되네요.” “다리가 예전처럼 안굽혀지면 어떡 하나 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앞으로 회복이 잘 되서 전처럼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해야 하는데 잘 될지 걱정입니다. 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냥 좋다고만 하면 어느정도나 회복된건지 앞으로 어느정도까지나 좋아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라는 표현을 포함하였으며,

〈신체변화에 대한 걱정〉의 내용으로는,

“퇴원하고 집에서 지내면서 병원서는 안 그랬는데 무릎있는데가 많이 부어 걱정 많이 했어요.” “아픈다리가 많이 낫신타 졌어요, 한쪽다리만 가늘어 지니까 신경쓰여요.” “걸을 때 다리를 약간 절고 힘도 없고 하니까 신경쓰여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고마움〕의 범주에는 〈가족 및 친지들의 지지에 대한 고마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야단도 제일 많이 하셨지만, 저에겐 제일 많이 힘이 되주셨어요.” “엄마가 아시는 한약방에서 보약도 지어다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조심하라고 자꾸 잔소리도 하지만 제일 고맙죠.” “식구들이 항상 제 곁에서 도와주어 고마웠어요.” “친구들이 조심해야 한다며, 자취하는데 와서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고 해서 참 고마웠어요.” “학교에서도 계단이 많다고 친구들이 가방도 들어주고, 김밥이나 먹을 것도 대신해서 사다주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직장 동료가 출근할 때 꼭 시간맞춰 자기차로 집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목공소에서 나무틀을 짜오셔서 그걸 이용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 V. 논 의

퇴원전·후의 내용상의 특성들을 보면 [퇴원전]에는 정상적인 신체회복이나 회복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있었으며, [퇴원후]에도 신체회복에 대한 걱정과 신체변화에 대한 걱정이 대

대부분의 대상자들에게 있었다. 퇴원 환자의 간호 계획 요구도에서 퇴원시 질병의 상태나 퇴원후 예상되는 후유증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이상미, 1985)나, 합병증 발현에 대해 염려하는 여러 연구(강규숙, 1976; 장성희, 1980; 김은경, 1992; Maureen & Sandra, 1988)들과서와 같이 병의 예후에 대한 불안이 있었으며, 장기 입원환자 가족의 요구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원동희, 1992)에서 환자의 상태나 변화에 대한 정보적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결과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 구체적 표현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건강하던 사람이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운동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장애에 대한 불안, 자기불행감, 의존심, 적응성과 사회성의 결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한윤복, 1991) 기동성장애 환자관리시 간호사들은 이들 환자와 가족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사회생활과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의욕과 동기부여를 갖게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퇴원전]에는 퇴원후 활동 제한으로 인하여 입원전에 수행하던 사회 활동제한과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기혼 남자들의 역할로 인한 생활비에 관한 걱정들이 있었으며, [퇴원후] 실제 생활중에 신체적 피곤감으로 인한 어려움과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타났다.

기동성 장애로 인한 활동의 변화는 환자들로 하여금 회복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하므로 그들의 상태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또한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심들을 표현하여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퇴원전]에는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의 자가 간호(self-care)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한 걱정이 많았다. [퇴원후] 실제 생활하는 중에는 일상적인 동작을 목발 사용을 해야하므로 활동제한으로 인한 불편감과 치료지시 이행에 대한 어려움이 대

부분의 대상자들에게 나타났다. 퇴원하기전 자신들이 휠체어 대신 목발을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하였거나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여 충분히 연습을 하였던 대상자들은 퇴원후 일상 동작에서 커다란 부담감이 없이 적응할 수 있었던 반면에 대개의 대상자들은 목발 사용의 연습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계단 이용시 두려움 등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퇴원후 외출을 거의 하지 않거나 결강, 휴업, 휴직 등으로 예전의 활동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이에 대한 퇴원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운동이나 자신의 상태와 관련된 상담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간호사들은 입원중에 가정이나 사회활동 환경에 맞는 퇴원간호계획을 세워 올바른 목발이용법과 보행 및 계단 다니기의 지도를 개인의 능력에 맞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김종임(1994)의 연구에서도 운동이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처럼 운동방법이나 빈도, 주의점을 설명하고 모니터 할 수는 없으므로 간호사는 운동에 대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점에 대하여 자세히 교육을 시켜야 하며 중요한 점은 환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환자 자신의 관리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였다. 이와같이 입원초기부터 계획하여 환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당면한 문제들을 자신의 환경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퇴원전]에는 주위 사람의 시선이나 주위 사람에게 부담감을 줄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으나, [퇴원후] 실제 생활에서 주위 사람에 대한 시선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환부의 부종이나 다리를 절거나 눈에 띄게 줄어든 대퇴부의 근육 감소 등이 걱정되었다는 내용에서와 같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하지근의 위축을 예방하고 관절구축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 운동 계획안에 따른 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활동감소와 근위축에 관련된 침상안정, 비활동으로 인한 근육크기 감소(최명애, 1991)와 활동저하후 회복기 쥐의 위축근에 대한 실험연구(최명애, 1992), 석고붕

대 제거후의 근위축이 현저하였던 연구(1993), 운동장애 환자의 사두근 근소실에 대한 연구(윤태자, 1989), 반월상연골 절제술후 슬관절 재활(김태열, 1994)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수술후 활동저하로 인한 하지근 위축 및 관절 강직(채영란, 1993) 등의 연구결과에서 운동감소에 따른 근위축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퇴원전 주위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이 실제 지내면서는 가족 및 친지들의 지지에 대하여 고마움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 질환으로 인한 가족이나 친지들의 지지에 의해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영향을 받으며(원동희; 1992, 김명자; 1991), 한국적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오가실(1994)의 연구에서도 도움이나 협조, 신세, 지원, 모성에 등의 어휘가 포함되고 있었으며, 만성이나 장기 입원환자들의 가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감을 이해하고, 이들 만성 및 장기환자들과 더불어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이영신; 1992, 원: 1992)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무릎 인대 손상환자들의 퇴원전후 관심사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현재의 퇴원하는 환자의 사전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퇴원간호계획을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부록>에 본 연구자가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KNEE LIGAMENT INJURY REHABILITATION의 내용을 참고하여 [무릎 인대 손상환자를 위한 안내]의 운동교육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입원초기부터 퇴원후까지 간호중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퇴원전 관심사로는 '회복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회복에 대한 막연한 걱정, 활동제한에 대한 걱정과 생활비에 대한 걱정, 자가 간호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한 걱정, 시선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줄 것에 대한 걱정'이 된다는 내용들이었다.
- 2) 퇴원후 관심사로는 '자가 간호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과 치료 지시이행에 대한 어려움, 신체

적 피곤감으로 인한 어려움,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목발사용에 대한 퇴원전 교육의 필요성, 지속적인 정보적 요구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한 정보에 대한 지지요구, 신체회복에 대한 걱정과 신체변화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걱정됨과 가족 및 친지들의 지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한 고마움' 등의 내용들이었다.

위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운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릎 인대 손상환자들의 퇴원간호계획을 위한 운동교육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무릎 인대 손상환자들의 간호중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무릎 인대 손상 환자 이외의 기동성장애 환자에게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2) 〈무릎 인대 손상 환자를 위한 안내〉 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규숙(1971), 간호사의 환자 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1).
- 김금순·유경희(1991), 퇴원시 간호정보 제공이 개심술 환자의 지식, 신체증상, 상태불안 및 일상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1(3).
- 김명자·송경애(1991), 지지간호가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회지, 21(3).
- 김영숙·김옥배·박오장·박춘자·서문자·유성자·이정희·이향련·최천자, 성인간호학(학), 수문사.
- 김용순(1976), 입원기간중 환자가 받은 건강정보에 대한 환자의 인식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은경(1992), 개심술 환자의 퇴원후 교육요구에 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종임(1992), 관절염환자의 운동간호 중재시 간호사의 역할, 대한간호학회지, 33(3).
- 김태열·김유정·황태연·허춘복(1994), 반월상연골절제술 후 슬관절 재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5(1).
- 석세일·하권익·장준섭·김남현·김익동·김성준·노성만·변영수·서광운·유명철·최창욱·한대용(1988), 정형외과학, 대한정형외과학회.
- 성경숙(1994), 운동 - 운동의 치료적 측면 -, 대한간호, 33(3).
- 소희영·김봉옥(1994), 재활간호, 현문사, 34.
- 오가실·서미혜·이선옥·김정아·오경옥·정추자·김희순(1994), Social Support의 한국적 의미, 대한간호학회지, 24(2).
- 원동희(1992), 장기 입원환자 가족의 요구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윤태자(1989), 운동장애 환자의 사투근 근소실에 대한 임상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상미(1985), 퇴원환자의 간호계획을 위한 요구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영신(1992), 만성입원환자 가족원의 부담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은옥·박현애·권인각(1994), 위암환자 퇴원 교육 프로그램이 환자와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6(2).
- 임현(1988), 후방 십자 인대 손상의 방사선학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학과 대학원.
- 장성희(1980), 환자가 요구하는 건강정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전경애(1977), 간호력을 통해 본 내과 입원 환자의 간호요구, 간호학회지, 7(2).
- 정영복·이성락(1994), 전방십자인대 손상에서 슬관절의 전방 이완도의 측정, 대한스포츠의학회지, 12(2).
- 채영란(1993),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수술후 활동저하가 하지근 위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경원(1987), 입원시 환자의 담당간호원이 인식한 간호요구도의 일치에 관한 조사연구, 석

- 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최명애(1991<1>), 운동이 쥐의 위축가자미근의 질량과 상대근 무게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1(3).
- 최명애(1991<2>), 입원환자에 있어 사지의 피부 두겹두께, 둘레 및 근력의 변화에 관한 연구, 간호학논문집, 5(1).
- 최명애(1992), 하지 석고붕대 제거후 정상측과 석고붕대 적용측의 상하지의 둘레, 피부두겹 두께 및 하지근력의 비교, 간호학회지, 23(1).
- 최명애(1992), 활동저하후 회복기의 운동훈련이 쥐의 위축근의 길이와 둘레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22(3).
- 최영희 · 김문실 · 조명옥(1990), 간호중재 - 퇴원계획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한경자(1987), 간호연구를 위한 현상학적 접근법,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춘계학술대회 보고서.
- 한윤복 · 노유자(1991), 정형외과 간호학, 수문사.
- Abdellah, F.W., Beland, I.L., Martin, A. (1970), Patient Centered Approaches to Nursing, New York, The Macmillan Co., 2nd, 90.
- Beatty, S.(1980), Continuity of care-the hospital and the community, New York, Grune and Stratton.
- Booth, F.W.(1977), Time course of muscular atrophy during immobilization of hindlimbs in rats, J. Appl, Physiol, 43(3).
- Bristow, O., Stickney, C.(1976), Discharge Planning for Continuity, New York, Nation League for Nursing.
- Connolly, M.L.(1981), Organize your work-day for more effective discharge planning, Nursing 81, July.
- Hushower, G., Gamberg, D., Smith, N. (1978), The Nursing Process in Discharge Planning, Supervisor Nurse, Sep, pp55~58.
- Jennings, C.P.(1977), Discharge Planning and the Government, Supervisor Nurse, March.
- Maureen Coe, BN, and Sandra Kluka, BN. (1988), Concerns of clients and spouses regarding ostomy surgery for cancer, Journal of enterostomal therapy, 15.
- Maureen Coe, BN, and Sandra Kluka, BN. (1990), Comparison of concerns of clients and spouses regarding ostomy surgery for treatment of cancer, Journal of enterostomal therapy, 17.
- Pasty, A,G,(1982), Preventing contracture, R.N.Decemb.
- Pender, N.J.(1974), Patient Identification of Health Information Recived During Hospitalization, Nursing Research, 23(3).
- Reichelt, P.A. & Newcomb, J.(1980), Organization Factor in Discharge Planning,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Dec.
- Robert, E.Mangine(1988), Postoperative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Rehabilitation, Churchill Living-stone.
- Robert, P.Engle(1988),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Rehabilitation, Churchill Livingstone.
- Steffl, B.M., and Eide, I.L.(1978), Discharge planning handbook, Thorofare, N.J., Charles B.Slack.
- Waters, E,J.(1980), How to do patient discharge planning, North Miami, Waters.

– Abstract –

## A study the concerns of patient with the knee ligament injury

*Hyun, Hye Young · Choi, Kyung Sook\**

This study has purpose to perform leaving the hospital nursing plan during hospital treatment of patient with the knee ligament injury on the basis of the concerns between the time of leaving the hospital after 2 weeks in hospital and the concerns through practical life after leaving the hospital systematically. This study is also tried to make exercise plan to prevent atrophy of Quadriceps muscle of the thigh caused by the limitation of activities. The subjects of study are 12 people who were in the hospital in affiliation to a university in Seoul, were operated on the knee ligament, and were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within 2 weeks. Data collection time was for about 4 months from December, 94 to March, 95.

Research method was performed 2 times by unorganized open questions. The collection of first data is through direct interview about the concerns before leaving the hospital, and secondary data is through direct interview about the concerns by practical life and experiences after leaving the hospital.

The data was categorized by classifying several common elements among similar

contents according to data by the situational analysis of Giorgi.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 1) The concerns before leaving the hospital are like that the concerns of recovery possibility, the limitation of activities, the grim realities of life, the lack of confidence about self-nursing, the eyes of the surroundings, the burden to the others, and so on.
- 2) The concerns after leaving the hospital are like that the demands of the inconvenience by the limitation of self-nursing, the support about self-nursing by the difficulties of performing treatment order, the support of physical activities limitation by physical tiredness and the limitation of social activities, the support of information by the necessities of education in using crutches before leaving the hospital and continuing informational needs, psychological and mental support of normal physical recovery by the worries of physical recovery and physical change, and social support by thankfulness for his family and relatives.

I suggest to make more systematic leaving the hospital nursing plan and exercise education plan for nursing plan after leaving the hospital of the patients with the knee ligament injury on the basis of this content.

---

\* Dep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 Kyung Sook